

수원지역 근현대사 연구의 동향

조성운

머리말

수원지역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한말 이래 민족 운동이 끊이지 않고 전개된 지역이다. 특히 3·1운동은 그 규모나 지속성 뿐만 아니라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다는 측면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수원지역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향토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향토사가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수원지역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된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분권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선결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수원지역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수반하여 1997년 『수원시사』를 개정, 발행하여 수원지역사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수원시사』 편찬의 완료와 함께 수원시는 학예연구사를 설치하였고 화성행

공의 복원 이후에는 학예연구사를 두어 지역사 전반과 화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문화사연구회, 화성연구회 등 지역사를 연구하는 단체들이 창립되면서 수원지역사 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외에도 경기대학교는 화성학연구소를 설치하였고 수원문화원에서는 2004년 봄에 수원문화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전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95년에 조직된 수원문화사연구회는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중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화성연구회는 각 대학의 강사를 비롯해 수원시 학예연구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수원문화원 부설로 조직된 수원문화연구소에는 경기대학교, 수원대학교, 한신대학교,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사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역사 연구는 화성과 3·1 운동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97년 12월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정조와 화성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결과 3·1 운동을 비롯한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진행되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원지역에서는 수원지역의 3·1 운동에 대한 학술회의가 몇 차례 개최되면서 수원지역의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원지역의 근현대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3·1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1920년대 이후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1945년 해방 이후사에 대한 연구는 수원시에서 편찬한 두 권의 증언자료집을 제외하면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수원지역의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제출된 연구를 중심으로 수원지역 근현대사의 연구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일제 시기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연구

수원지역의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최근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로 3·1 운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3·1 운동의 전후 시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개항 이후 3·1 운동 이전까지의 연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는 자료상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 연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수원지역 3·1 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수원문화원과 화성문화원이 3·1 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화성문화원과 수원문화원이 3·1 운동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더욱이 화성시에서는 2003년에 『화성지역 3·1 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원지역 3·1 운동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수원지역의 3·1 운동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2년 '화성지역 3·1 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화성시와 한국민족운동사학회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서평일은 화성지역의 민족운동을 개괄하였고,¹ 박환은 송산면 사강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3·1 운동을 일제의 자료와 운동 관련자 후손들의 증언을 이용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² 이정은은 기존의 자신의 논문³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며,⁴ 최홍규는 천도교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3·1 운동을 살핀 후 1920년대 이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단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⁵

1 서평일, 「화성지역의 항일운동」, 『화성지역 3·1 운동의 역사적 위상』, 2002.

2 박환, 「송산면의 3·1 운동」, 위의 책.

3 이정은, 「화성군 우정면·장안면 3·1 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9, 독립기념관, 1995.

4 이정은, 「장안·우정면 3·1 운동과 그 성격」, 『화성지역 3·1 운동의 역사적 위상』, 2002.

5 최홍규, 「수원지방의 3·1 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의 양상」, 위의 책.

한편 수원문화원이 2003년에 주최한 학술회의에서는 김창수, 김권정, 성주현, 조성운 등이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⁶ 김창수는 3·1 운동 연구사를 개괄한 후 수원지역의 3·1 운동 연구에 다양한 시각을 원용할 것을 제의하였다.⁷ 김권정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3·1 운동 무렵의 수원지역 기독교의 개황을 서술하면서 수원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조직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3·1 운동 이후 수원지역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였는가를 인물 중심으로 서술하여 3·1 운동 이후의 수원지역의 기독교 동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⁸ 성주현은 천도교적인 입장에서 수원지역의 3·1 운동을 파악하였다.⁹

그리고 수원문화원이 주최한 2004년의 학술회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김세환金世煥의 활동을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는 '민족대표 48인 중 1인으로서의 김세환'에 대해 정리한 최초의 학술회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는 박환, 조이제, 조성운, 김권정 등이 김세환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였다. 박환은 경기도지역의 3·1 운동을 수원지역의 3·1 운동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¹⁰ 그는 수원시와 화성시를 분리하여 설명함으로써 현재의 행정구역에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화성시는 3·1 운동 당시 수원군의 일부였고 현재에도 수원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행정구역이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른 서술을 한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조이제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김세환의 활동을 정리하였

6 김창수, 김권정, 성주현 등은 아래 각주 참조. 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동향」, 『수원지방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2003.

7 김창수, 「3·1 독립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 위의 책.

8 김권정, 「수원지역 기독교인들의 3·1 운동 참여와 동향」, 위의 책.

9 성주현, 「수원지역 3·1 운동과 천도교인의 역할」, 위의 책.

10 박환, 「경기도지역 3·1 운동의 연구동향과 전망」, 『김세환 3·1 운동기념비건립기념학술회의발표문』, 수원문화원, 2004. 2. 27.

다.¹¹ 그는 밀러 선교사의 기록을 토대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서술함으로써 김세환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였다. 조성운은 수원상업강습소(화성학원)와 삼일학교를 중심으로 한 김세환의 교육활동을 살폈다.¹² 이 글에서 그는 화성학원의 사례를 통해 김세환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과 교육운동의 중심인물로 파악하였다. 김권정은 김세환의 민족운동이 '기독교민족운동'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그의 활동이 기독교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강조하였다.¹³

이외에도 서평일은 「화성지역 3·1 운동의 지방사적 배경」에서 수원지역 3·1 운동의 전반적인 발생조건과 전개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지도부 및 민중의 의식까지도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3·1 운동 이후의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전개양상은 중앙 차원의 민족운동 전개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졌듯이 3·1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폭로된 지도부의 개량성에 대한 민중의 도전에 따라 민중 혹은 대중 중심의 새로운 운동단체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은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농민운동, 노동운동, 형평사운동, 신간회운동, 교육운동 등의 부문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수원지역에서도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다. 1920년대 이후의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성운은 1920년대 이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사 연구에 선구적인 업적을 제출하였다. 그는 학생운동, 교육운동, 농민운동, 신간회운동, 청년운동,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운동까지 부문운동별로 개척적인 논문을 발표하여 이 분야 연구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를 모아 『일제하 수원

11 조이제, 「김세환의 생애와 종교운동」, 위의 책.

12 조성운, 「수원지역 사립학교의 성장과 김세환」, 위의 책.

13 김권정, 「김세환과 기독교민족운동」, 위의 책.

지역의 민족운동』(국학자료원, 2003)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1920년대 이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연구서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조성운의 연구를 중심으로 1920년대 이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조성운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학생운동에 주목하였다.¹⁴ 이 논문에서 그는 수원고농의 학생운동을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시기(1923~1928)와 사회주의에 입각한 시기(1931년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특히 전자의 경우 상록수운동이라고도 하는 농민야학에서 운동의 특징을 찾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주목되는 점은 1930년대 이후의 수원고농 학생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다. 이외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박환과 이현희의 연구가 있다.¹⁵

다음으로 그는 수원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발전을 교단 측의 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밝혔다.¹⁶ 수원지역 동학의 전래와 성장, 천도교의 성장과 발전, 3·1 운동과 천도교와의 관계, 1920년대 천도교의 민족운동 등 구한말 이래 신간회 시기까지의 수원지역 천도교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성주현의 연구가 있다.

조성운은 농민운동에도 주목하였다.¹⁷ 그에 의하면 수진농민조합은 수원과 진위(평택)의 양군이 조직한 하나의 농민조합이었다. 이는 1군 1조합의 원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우 독특한 조직형태였다. 그는 그 이유로 수진

14 조성운, 「일제하 수원고농의 학생운동과 상록수운동」, 《경주사학》 4호, 동국대 국사학과, 1995.

15 박환, 「1920년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비밀결사-건야단과 조선개혁사를 중심으로」, 『길현익교수정년퇴임논총』, 길현익교수정년퇴임논총간행위원회, 1996; 이현희, 「수원고농 학생의 항일투쟁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9.

16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 《경기사론》 4·5합집, 경기대학교 사학회, 2001.

17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농민조합운동」, 《동국역사교육》 5, 동국대 역사교육과, 1997.

농민조합의 활동가들이 행정체계에 따라 1군 1조합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조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제의 조작이었다는 증언도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조성운은 또 수원지역의 근대교육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¹⁸ 그는 수원상업강습소(화성학원)와 삼일학교의 사례를 통해 수원지역의 근대교육이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수원상업강습소는 수원상업회의소가 실력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설립하였으며 이후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중심지역 역할을 하였던 점, 이들 사립학교의 발기인 혹은 설립자가 지역의 유지층임도 밝혔다. 그리고 수원지역의 근대교육기관은 표면적으로는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도 밝혔다.

그는 또한 수원지역의 청년운동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¹⁹ 이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 초반의 청년회가 방향전환을 한 시기는 보통 1926년 말부터 1927년 초인데 반하여 수원지역의 청년운동이 방향전환을 이룬 시기는 1929년 초임을 밝혔다. 이는 당시 수원지역에서 민족주의적 세력의 사회적 인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라 보았다.

계속해서 그는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을 최초로 검토하였다.²⁰ 이에 따르면 신간회 수원지회는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세력, 기독교 세력이 연합하여 조직하였으며 그중 천도교 측이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시기부터 조직부를 장악함으로써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신간회 수원지회의 임원, 간부의 성격을 밝힘으로써 수원지

18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민족교육의 성장과 실태」, 《수원문화사연구》 3, 수원문화사연구회, 1999.

19 조성운, 「1920년대 경기도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20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 《실학사상연구》 15·16합집, 무악실학회, 2000.

역 민족운동의 주도층 성격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성운은 1920년대 후반 이후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중심인물인 박승극의 활동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활동을 통해 검토하였다.²¹ 이 연구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지부 활동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구술사 및 현대사에 대한 검토

수원지역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의 근현대사에 관련된 인물들이나 사건에 관해 관련자들의 구술을 받아 기록하는 작업도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이는 일제 시기의 신문자료나 일제의 관변문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 연구자뿐만 아니라 수원시사편찬위원회와 같은 공적인 조직도 참여하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수원지역의 근현대사 연구에 구술자료를 이용한 연구자는 조성운, 박환, 김세영 등이 있다. 조성운은 박승극에 대한 연구에서 최장식(1930년생), 한남수(1930년생), 공신택(1920년생) 등의 구술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원지역의 대표적 민족운동자인 김노적의 아들 김덕형을 인터뷰하여 채록하기도 하였다.²²

박환은 앞에서 본 『화성지역 3·1 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후손들에 대한 구술작업을 광범위하게 수행하여 이 지역 3·1 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무엇보다도 수원지역의 구술사 정리에서 돋보이는 것은 수원시사편찬위원회가 2001년과 2002년에 발행한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 I·II』라 할 수

²¹ 조성운, 「박승극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독립기념관, 2001.

²² 《수원문화사연구》 5,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있다.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 I』에 수록된 증언자는 김시중(화성군인민위원회 서기장), 김찬(55년 민주당 중앙위원), 박용근(수원군 1·2대 국회의원 김웅진 사무장), 박창균(대한청년단장), 안익승(수원문화원장), 오상근(보안부대 수원분실장), 이득성(민주당 비밀당원, 진보당 활동), 이정근(3·1 운동), 이홍범(1952년 초대 수원시의회 의원), 차병혁(3·1 운동), 최상균(1960년 수원시의회 의장 당선) 등이며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 II』에 수록된 증언자는 김남수(천주교 수원교구장), 김동휘(의사,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장), 김순기(경기도무형문화재 14호), 김우식(목수, 1970년 화성복원 참여), 김학모(세무사, 수원상업학교 1회 졸업), 오수복(무속인,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우봉제(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윤한흠(화가, 천도교 관련), 이위경(천도교 수원권선교구장), 임원순(수원성공회성당 신자), 정광희(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장), 조광현(무속인,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차명환(영동시장 중앙상회 대표) 등이다. 이처럼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 I·II』는 수원지역의 근현대사 관련 인물들 중 각 분야의 대표인물들의 증언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을 그들의 삶의 증언을 문자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지역사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수원지역의 현대사에 관련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시중이 증언한, 해방 직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수원지역의 정치적 지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김시중은 1912년생으로 수원군 양감면 사창리의 소지주 출신이다. 1927년 서울 중앙고보에 진학하였으나 1930년 초에 중퇴한 후 사창리에 당숙이 설립한 보신강습소의 교사가 되었다. 해방 후에는 남로당 수원군당 부위원장과 화성군인민위원회 서기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1948년 5·10 단선 반대투쟁을 지도하다가 수감된 후 미결인 채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북한군의 서울 점령으로 출옥한 후 화성군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북한군이 철수하게 되자 화성군당의 수습과 사후 일처리를 위해 잔류하던 중 체포되어 종신형에 처해졌다. 이후 22년간의 수감



한국전쟁 당시 부서진 장안문의 모습

생활을 하였으며 전향을 거부하다가 1972년 아들의 간곡한 권유로 전향서를 쓰고 출옥하였는데 전향의사를 철회하여 1977년 재수감되었다가 1982년 다시 출옥한 대표적인 비전향장기수 중 한 명이다.

그가 수원지역 민족운동에 참여한 것은 1930년 서울 중앙고보를 중퇴한 이후 수원군 소년동맹 양감면 지부를 지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박승극, 장주분 등 수원군의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박승극은 앞에서 보았듯이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로, 수원청년동맹, 수진농민조합,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신간회 수원지회 등의 지도자로서 1920년대 후반 이후 수원지역 민족운동을 지도하였다. 수원지역 민족운동에 관한 김시중의 증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수진농민조합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받았던 수진농민조합 사건이 일제의 조작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시중은 1933년 노동운동을 배우기 위해 일본 오사카로 건너간다. 그곳에서 그는 유리공장의 파업을 지도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일본공산당과도 연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

본공산당으로부터 오사카 내의 조선인 단체에서 친일분자를 축출하여 친목 단체로 전환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이들 단체를 망라하여 '조선인단체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1938년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1940년 무렵 만주로 건너가 영림서에 취직하였으나, 1943년 사상불온자로 낙인찍혀 해직되었다가 만주임업주식회사에 취직했고 1945년 해방을 맞게 되었다.

해방 이후 그는 조선공산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증언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시기 수원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해방 후 그는 고향인 수원으로 돌아오자마자 박승극을 찾았고 그의 추천에 의해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다고 한다. 당시 수원은 박승극 등이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형식상 수원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미군정에 의해 인민위원회의 지도자인 박승극이 '옛날 경찰'에 의해 구금당하는 처지였다고 한다. 이에 김시중은 입당 이후 자신에게 부여된 양감면의 세포활동을 통해 민중을 획득하는 사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양감면의 조선공산당원은 자신과 장주문 둘뿐이었고 후보당원이 3~4명 정도였다고 하였다. 소수의 인원으로 그는 소작료 3·7제 관철 등 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전단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집집마다 투입하거나 거리에 붙이는 일을 하였다.

그의 증언 중 주목되는 것은 대구에서 10월 인민항쟁이 시작될 때 양감면에서는 능동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수원군당이 면당에게 모든 행동계획을 위임했던 것으로 보아 수원군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결국 어떠한 계획도 실행하지 못하고 양감면당을 비롯한 수원군당은 경찰의 탄압으로 궤멸되었던 것 같다.

한편 1946년, 그는 모스크바 3상회담과 미소공동위원회를 지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된 3·1절 기념대회에 120명 정도의 수원지역민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조선공산당과 인민당, 신민당의 합당에 관한 논의

가 시작되고 남로당이 성립된다. 이 시기 수원지역의 조선공산당은 박헌영 그룹과는 대립하는 대회파에 속했다고 한다. 수원지역의 합당은 수원지역에 인민당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공산당과 신민당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민당 출신은 주로 재정지원을 많이 했다고 한다. 1947년이 되면 수원군당은 무상몰수·무상분배를 내걸며 전개된 3·22 총파업, 두곡리 경찰납치사건, 하곡수매 거부투쟁, 2·7 투쟁, 5·10 투쟁 등을 주도한다. 하지만 3당 합당이후 군당조직이 자리잡기 이전에 수행한 3·22 총파업은 투쟁성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듯하며 하곡수매 거부투쟁 이후에야 수원지역민에 조직적인 지도가 가능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오상근은 1922년생으로, 해방 후 경찰에 투신하여 1949년 육군본부 특별방첩대 수사계장, 1959년 수원지구 방첩대장을 역임한 우익이다. 이 처럼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 I』은 좌우익을 망라하여 수원지역의 현대사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다른 한편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 II』에 수록된 증언으로 주목되는 것은 김남수 주교, 윤한흠, 임한순 등 종교계 인사의 증언이다. 이들의 증언으로 수원지역 종교계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이창식이 쓴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수원문화원, 2003)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언론인으로서 수원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저자가 수원지역의 근현대사를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수원지역의 근현대사를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책이 갖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일제 시기 수원농사시험장의 서무과장이던 구로차와 마쓰키黑次松樹가 쓴 『남조선상황南朝鮮狀況』의 전문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수원농사시험장을 미군정이 접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당시 수원지역민이 일본인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각주를 첨부하지 않아 학문 연구에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수원지역에 대한 증언은 개별 연구자 및 수원시사 편찬위원회의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의 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이는 3·1 운동 이전의 연구가 전무한 형편과 함께 수원지역의 근현대사연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수원문화원이 발간한 『구한말·일제하 수원관계 신문자료집 I』(2002)이 1910년 이전의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의 수원관련 기사의 본문을 정리한 것은 의미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일제 시기의 신문 기사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향후 수원지역 현대사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는 까닭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수원지역의 근현대사 연구를 정리하였다. 3·1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원지역의 근현대사 연구는 최근 양적·질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성장하였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3·1 운동기에 집중되어 1920년대 이후의 연구는 한정되어 있으며 이 시기 연구자의 수도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는 수원지역 근현대사 연구의 구조적인 모순이기도 하다. 즉 수원지역사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근현대사 연구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3·1 운동 과정에서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이 수원지역이기 때문에 수원지역의 근현대사는 3·1 운동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당연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원지역사 연구의 지원도 대부분 이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후의 민족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가 간행되는 등 수원지역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경기도 내의 타 지역과 비교해 활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원지역이 경기도의 도청소재지로서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수원대학교, 한신대학교 등 사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교수들의 지역사에 대한 나름의 연구가 뒷받침되었다는 점, 지역 내에 한국사 연구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최근 수원문화원과 화성문화원 등이 수원지역의 근현대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지원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지역 내의 인적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낼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역사 연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수원지역 역사학계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체계적인 수원지역의 근현대사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화성 중심의 지역사 연구는 한계에 도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보다 확고한 지역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통시대적인 역사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일제 시기 민족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이 지역이 3·1 운동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구한말 이후 3·1 운동 이전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서도 서술했듯이 수원지역의 근현대사 연구는 3·1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1 운동이 이 지역에서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으로 3·1 운동 이전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수원지역 근현대사의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사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3·1 운동 연구에서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주목한 박환과 이동근의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수원지역의 현대사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일제 시기의 역사와 해방 후의 역사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수원지역의 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조성운 chosongwoon@hanmail.net | 문학박사. 일제하 농민운동을 전공. 현 수원 천천고등학교 교사. 저서로는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등이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일제하 영동지방 농민조합운동의 구조와 성격-참여자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매일신보를 통해 본 1910년대 일 본시찰단」 등이 있다.